

제시 : 공포로 하여 중공은 탈당센터전화선에 수작을 피웠는데 전화가 통한후 록음으로 이것은 빈 번호이니 이 전화를 치지 마시오라고 알려줄 것이다. 속하우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인차 통할 것 이니 서로 전하여 알리시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헐기 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



36

제시 : 공포로 하여 중공은 탈당센터전화선에 수작을 피웠는데 전화가 통한후 록음으로 이것은 빈 번호이니 이 전화를 치지 마시오라고 알려줄 것이다. 속하우지 말고 전화를 끊지 마시고, 인차 통할 것 이니 서로 전하여 알리시오.

** 당신은 가능하게 나는 사상중에서 일찍 탈퇴하였고 또한 당비도 바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모두 무효다. 왜냐하면 그 헐기 앞에서 하늘에 대해 독한 선서를 할때 당신은 일생의 생명을 모두 사악한 당에 받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여 탈출하는 행위의 표시가 있어야 만이 이렇게 큰 독한 선서를 없앨수 있으며 하늘이 중공을 멸할 때 평안을 보증할수 있다 !



- 18년을 기다린 혼례
-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역시 //담을 넘어// 야 한다
- 선택



아침해살

2009.11-2009.12

- 18년을 기다린 혼례
-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역시 //담을 넘어// 야 한다
- 선택



아침해살

2009.11-2009.12

36

목 록

【서두일문】	3
한번 더 신중해야 한다	
【문단】	4
믿음이 준 효과	
【인물채방】	8
18년을 기다린 혼례	
인류의 새로운 과학	
【심령양광】	18
부친을 그리워하며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시사열담】	24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그도 “담을 넘어” 야 한다	
【전통문화】	27
로자와 도덕경	
【선택】	32



2009.11-2009.12

목 록

【서두일문】	3
한번 더 신중해야 한다	
【문단】	4
믿음이 준 효과	
【인물채방】	8
18년을 기다린 혼례	
인류의 새로운 과학	
【심령양광】	18
부친을 그리워하며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시사열담】	24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그도 “담을 넘어” 야 한다	
【전통문화】	27
로자와 도덕경	
【선택】	32



2009.11-2009.12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천상이므로 사람은 오직 하늘의 뜻에 따라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여만 비로서 “그것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독한 맹세를 지울수 있으며 이로하여 신명(神明)의 보호를 받고 행복과 건강을 누릴수 있다.

오늘 매개 중국사람들은 또다시 선택에 직면하였다. 6천 6백여만의 사람들이 이미 명지한 결단을 내렸다. 하나의 간단한 결정이 심령의 해탈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보호를 얻을수 있는데 왜 즐겨하지 않겠는가? 응당 각성하여야 한다. (문 / 대로)

탈당탈단탈대 (3 퇴) 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 발표 :

tuidang@epochtimes.com

인터넷 돌파 프로그램으로 오른다 :

<http://tuidang.epochtimes.com>

탈당전화: 001-416-361-9895

 혹은 001-888-892-8757

탈당팩스: 001-510-372-0176

 혹은 001-702-248-0599

**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불인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천상이므로 사람은 오직 하늘의 뜻에 따라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여만 비로서 “그것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는 독한 맹세를 지울수 있으며 이로하여 신명(神明)의 보호를 받고 행복과 건강을 누릴수 있다.

오늘 매개 중국사람들은 또다시 선택에 직면하였다. 6천 6백여만의 사람들이 이미 명지한 결단을 내렸다. 하나의 간단한 결정이 심령의 해탈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보호를 얻을수 있는데 왜 즐겨하지 않겠는가? 응당 각성하여야 한다. (문 / 대로)

탈당탈단탈대 (3 퇴) 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

해외 전자우편으로 성명 발표 :

tuidang@epochtimes.com

인터넷 돌파 프로그램으로 오른다 :

<http://tuidang.epochtimes.com>

탈당전화: 001-416-361-9895

 혹은 001-888-892-8757

탈당팩스: 001-510-372-0176

 혹은 001-702-248-0599

** 먼저 성명을 공공장소에 불인후 다시 인터넷에 발표한다.

한번 더 신중해야 한다



서두일문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

고 여긴 한 젊은이가 책을 쓰려고 하였다. 책속에 “지역적인 소재”를 물색하기 위하여 휴가일을 이용하여 소재 찾으러 나갔다. 그는 빈곤하고 타락하고 게으르며 산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소설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아무곳에서나 이런 사람을 꼭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하루 확실히 그는 이런 곳을 찾았다. 그곳에는 황량하고 몰락된 장원이였는데 가장 사람을 격동시킨 것은 그의 상상속에서의 그런 게으르고 산만하게 살아가는 장면을 찾은 것이였다. 온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한 한 로인이 회색 작업복을 입고 결상에 앉아 한뼘기 감자밭에서 풀을 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뻣끼칠을 하지 않은 작은 나무헛간집 한채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몹시 흥분되었고 자신이 지금 바로 집으로 달려가 타자기앞에 앉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가 나무헛간집을 에돌아 질척한 길에서 굽이돌이를 돌때 또 다른 각도에서 로인을 향해 바라

3

한번 더 신중해야 한다



서두일문

스스로 자신이 대단하다

고 여긴 한 젊은이가 책을 쓰려고 하였다. 책속에 “지역적인 소재”를 물색하기 위하여 휴가일을 이용하여 소재 찾으러 나갔다. 그는 빈곤하고 타락하고 게으르며 산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소설의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는 아무곳에서나 이런 사람을 꼭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하루 확실히 그는 이런 곳을 찾았다. 그곳에는 황량하고 몰락된 장원이였는데 가장 사람을 격동시킨 것은 그의 상상속에서의 그런 게으르고 산만하게 살아가는 장면을 찾은 것이였다. 온 얼굴에 수염이 더부룩한 한 로인이 회색 작업복을 입고 결상에 앉아 한뼘기 감자밭에서 풀을 매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뻣끼칠을 하지 않은 작은 나무헛간집 한채가 있었다.

이 젊은이는 몹시 흥분되었고 자신이 지금 바로 집으로 달려가 타자기앞에 앉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가 나무헛간집을 에돌아 질척한 길에서 굽이돌이를 돌때 또 다른 각도에서 로인을 향해 바라

없다.” 후에 호사두는 “우파”로 몰리워 정신이 붕괴되어 한통의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찬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그해 그는 36살이였다.

그 년대에 많은 해외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벅찬 열정으로 조국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오히려 운동 투쟁, 룽욕과 살륙이였다. 로사(老舍)는 주은래의 요청에 응하여 조국에 돌아왔는데 1966년에 야만적인 비판투쟁을 받았으며 후엔 태평호에(太平湖) 몸을 던졌다; 륙홍은(陸洪恩)은 국외로부터 돌아와 조국에 보답한 저명한 음악가이자 상해 교향악단의 지휘이다. 그는 정신이 실성한 상황에서도 언론죄로 자기의 조국에서 살해당하였다.

력사를 돌이켜 볼때 중공을 선택하면 바로 암흑과 룽욕을 선택한 것이다. 중공이 정권을 훔친후의 60년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통치하였고 각종 운동을 발동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8천만 중국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죽었으며 오늘에 와서 또한 “찐, 쌐, 런”을 신앙하는 선량한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죄악이 가득찼으며 사람과 신의 공동한 분개를 자아내고 있다. 중외에서 전해진 예언이거나 아니면 오늘의 여러가지 천상을 막론하고 모두 지금은 그것의 죄악을 청산할때가 이미

34

없다.” 후에 호사두는 “우파”로 몰리워 정신이 붕괴되어 한통의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찬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그해 그는 36살이였다.

그 년대에 많은 해외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벅찬 열정으로 조국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오히려 운동 투쟁, 룽욕과 살륙이였다. 로사(老舍)는 주은래의 요청에 응하여 조국에 돌아왔는데 1966년에 야만적인 비판투쟁을 받았으며 후엔 태평호에(太平湖) 몸을 던졌다; 륙홍은(陆洪恩)은 국외로부터 돌아와 조국에 보답한 저명한 음악가이자 상해 교향악단의 지휘이다. 그는 정신이 실성한 상황에서도 언론죄로 자기의 조국에서 살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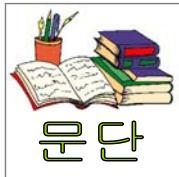
력사를 돌이켜 볼때 중공을 선택하면 바로 암흑과 룽욕을 선택한 것이다. 중공이 정권을 훔친후의 60년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통치하였고 각종 운동을 발동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적어도 8천만 중국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죽었으며 오늘에 와서 또한 “찐, 쌐, 런”을 신앙하는 선량한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죄악이 가득찼으며 사람과 신의 공동한 분개를 자아내고 있다. 중외에서 전해진 예언이거나 아니면 오늘의 여러가지 천상을 막론하고 모두 지금은 그것의 죄악을 청산할때가 이미

34

3

보았다.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원래 이쪽에서 보았을때 그는 로인의 걸상옆에 한 불구자의 지팽이가 기대여있고 바지 한 가랭이가 텅텅 빈채로 수직되어 지면까지 드리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시에 방금까지 젊은이의 머리속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듯한 인물이 단번에 하나의 백절불굴의 영웅형상으로 되여 버렸다.

확실히 우리는 때로는 보았거나 혹은 무엇을 들었을때 곧바로 사실의 전반적면모를 료해하였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바로 정반대이다. 이 젊은이를 따라배워 다른 한 각도에서 한번 더 본다면 당신은 꼭 발견할 것이다. 아, 원래 진상은 이런 것이였구나!



믿음이 준 효과

나는 새로 부임된 선생님이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 여 학생과 나 사이에 있었던 진실한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녀자아이 대하여 그 어떤 뚜렷한 인상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가지 뜻밖의 일이 발생하면서 나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

4

보았다.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다. 원래 이쪽에서 보았을때 그는 로인의 걸상옆에 한 불구자의 지팽이가 기대여있고 바지 한 가랭이가 텅텅 빈채로 수직되어 지면까지 드리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시에 방금까지 젊은이의 머리속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들판의 인물이 단번에 하나의 백절불굴의 영웅형상으로 되여 버렸다.

확실히 우리는 때로는 보았거나 혹은 무엇을 들었을때 곧바로 사실의 전반적면모를 료해하였다고 여기지만 때로는 바로 정반대이다. 이 젊은이를 따라배워 다른 한 각도에서 한번 더 본다면 당신은 꼭 발견할 것이다. 아, 원래 진상은 이런 것이였구나!



믿음이 준 효과

나는 새로 부임된 선생님이다.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 여 학생과 나 사이에 있었던 진실한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녀자아이 대하여 그 어떤 뚜렷한 인상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가지 뜻밖의 일이 발생하면서 나의 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

4

아들 호사두(胡思杜)는 부모를 따라 남행하기 싫어했으며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공산당에 해로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를 어찌하지 않을 것이다.” 호적은 그에게 매우 유명한 한단락의 말을 하였다: “미국사람이 오니 뺑도 있고 자유도 있다; 쏘련사람이 오니 뺑은 있으나 자유는 없다; 그들이 오니 뺑도 없고 자유도 없다.” 호사두가 제 생각을 고집하자 호적부부는 하는수 없이 귀중품 한상자를 남기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북경이 중공에 점령된후 호사두는 급급히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려 하였고 중공정권의 긍정을 받으려 하였다. 그는 주동적으로 호적이 남긴 한상자의 재물을 바쳤으며 따라서 요구에 순응하여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노력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호적에 대한 비판》이란 글을 써서 호적과 계선을 나누겠다고 표명하였다. 호적은 알고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일찍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국가에는 언론자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은 침묵의 자유마저도 그곳엔



■ 가운데: 호적
■ 좌편: 장자 호조망
■ 우편: 차자 호사두

33

아들 호사두(胡思杜)는 부모를 따라 남행하기 싫어했으며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공산당에 해로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를 어찌하지 않을 것이다.” 호적은 그에게 매우 유명한 한단락의 말을 하였다: “미국사람이 오니 뺑도 있고 자유도 있다; 쏘련사람이 오니 뺑은 있으나 자유는 없다; 그들이 오니 뺑도 없고 자유도 없다.” 호사두가 제 생각을 고집하자 호적부부는 하는수 없이 귀중품 한상자를 남기고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북경이 중공에 점령된후 호사두는 급급히 새로운 사회에 들어가려 하였고 중공정권의 긍정을 받으려 하였다. 그는 주동적으로 호적이 남긴 한상자의 재물을 바쳤으며 따라서 요구에 순응하여 자기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노력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호적에 대한 비판》이란 글을 써서 호적과 계선을 나누겠다고 표명하였다. 호적은 알고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일찍 알고 있었다. 공산주의국가에는 언론자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은 침묵의 자유마저도 그곳엔



■ 가운데: 호적
■ 좌편: 장자 호조망
■ 우편: 차자 호사두

33

가 현묘한 것은 그것이 자연의 각도에서 반본귀진(返本归真)의 진실한 존재를 상세히 해석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번잡한 세상속에서 명,리,정은 모두 눈앞에서 스쳐지나가는 구름연기와 같고 한월의 우단화처럼 인차 사라지는 것이며 오직 자연속에서 마음속으로 도의 참된 뜻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서 생명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문/소옥)

선택



【명혜망】 인생의 갈림길에서 좌권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우권으로 갈것인가? 매사람마다 모두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선진전국(先秦戰國) 때 양주(楊朱)가 길목에서 울었다는 옛이야기가 있다. 양주는 십자거리에 도착하자 어려워하였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었다. 이 옛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1948년 12월 북경은 이미 중공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국민당은 비행기로 북경에 있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공중으로 운송하였다. 호적(胡适)은 국제유명인사, 지명학자로 첫 차례로 안배되었다. 그의

가 현묘한 것은 그것이 자연의 각도에서 반본귀진(返本归真)의 진실한 존재를 상세히 해석하였으며 사람들에게 번잡한 세상속에서 명,리,정은 모두 눈앞에서 스쳐지나가는 구름연기와 같고 한월의 우단화처럼 인차 사라지는 것이며 오직 자연속에서 마음속으로 도의 참된 뜻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서 생명에서 가장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문/소옥)

선택



【명혜망】 인생의 갈림길에서 좌권으로 갈것인가 아니면 우권으로 갈것인가? 매사람마다 모두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선진전국(先秦戰國) 때 양주(楊朱)가 길목에서 울었다는 옛이야기가 있다. 양주는 십자거리에 도착하자 어려워하였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울었다. 이 옛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1948년 12월 북경은 이미 중공의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국민당은 비행기로 북경에 있는 전문가와 학자들을 공중으로 운송하였다. 호적(胡适)은 국제유명인사, 지명학자로 첫 차례로 안배되었다. 그의

개학하여 두주일이 채 되기전이였다. 그는 갑자기 학교에 공부하러 오지 않아 나는 급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걱정스러웠고 짬만 있으면 학교문 앞에 가 살펴보았지만 시종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관련부문에 알릴수 밖에 없었다.

동학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를 관계하지 마세요! 예전의 선생님들은 모두 그가 제일 잘 뺑소니 친다고 말하였는데 아무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관계하지 못해요!” “뺑소니치다니?”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무엇때문에 그는 학교에 오지 않고 뺑소니칠까? 나 이 새 선생님이 그에게 너무 큰 압력을 주었었는가? 아니면 그한테 말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따로 있는 것일가?

이튿날 그는 마침내 나타났다. 내 마음속의 돌덩이도 내려 앉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도닥이며 그에게 말하였다: “왔으니 참 잘됐다! 다음엔 학교에 오지 못하면 기억하고 선생님한테 전화하여 나더러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거라.”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나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쪽지를 연필통에 넣었다.

하교하자 학생들은 나를 에둘러서서 말하기를:

개학하여 두주일이 채 되기전이였다. 그는 갑자기 학교에 공부하러 오지 않아 나는 급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걱정스러웠고 짬만 있으면 학교문 앞에 가 살펴보았지만 시종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 사실을 관련부문에 알릴수 밖에 없었다.

동학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를 관계하지 마세요! 예전의 선생님들은 모두 그가 제일 잘 뺑소니 친다고 말하였는데 아무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관계하지 못해요!” “뺑소니치다니?” 그렇지 않을 것인데!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무엇때문에 그는 학교에 오지 않고 뺑소니칠까? 나 이 새 선생님이 그에게 너무 큰 압력을 주었었는가? 아니면 그한테 말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따로 있는 것일가?

이튿날 그는 마침내 나타났다. 내 마음속의 돌덩이도 내려 앉았다. 나는 그의 어깨를 도닥이며 그에게 말하였다: “왔으니 참 잘됐다! 다음엔 학교에 오지 못하면 기억하고 선생님한테 전화하여 나더러 네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끔 하거라.” 그는 눈을 크게 뜨더니 나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종이쪽지를 연필통에 넣었다.

하교하자 학생들은 나를 에둘러서서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은 리선생님과 달라요! 리선생님은 줄곧 그에게 무엇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았는가를 물어요. 그가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교육받기 힘들다’고 그를 욕해요.” “우리 중급학년의 선생님들은 늘 그를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가 게으르고 또한 공부도 차하고 수업시간을 뺑소니칠줄 밖에 모른다고 욕해요.” 그들의 말에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도 자신이 너무나도 해이한 것이 아닌가고 의심하였고 학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몇주일 지나서 나는 이 녀자아이의 학습성적이 정말로 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숙제는 거의 자기 스스로 완성할 수 없었다. 어느 하루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서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공부를 선생님이 도와줄까?” 그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하자, 집에 돌아가면 너에게 숙제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점심시간에 동학들더러 너를 도와 수업이 힘든 부분을 완성해주면 좋지 않겠니?”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쳤으면 좋겠니?” 그는 생각하더니 몇명의 이름을 말하였다.

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거친후 그들이 점심잠을 자지 않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더러 룸번으로 녀자아

6

느냐?” 말을 마치자 서갑더러 얼굴을 땅에 향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자 그 ‘태현진부(太玄真符)’가 즉시로 뿐어나왔는데 부작 위의 주사(朱砂)글체는 방금 쓴 것과 같았으며 서갑은 단번에 한구의 백골로 변하였다.

령윤희는 로자가 신인인것을 알고 바로 엎들여 절하면서 서갑을 위해 사정하였고 아울러 자원하여 로자를 대신하여 빛을 갚겠다고 하였다. 로자가 그 태현진부를 다시 서갑에게 던져주자 서갑은 즉시로 부활하였다. 령윤희는 서갑에게 2백 만전을 주고 그를 되돌려보냈다. 령윤희는 로자를 향해 공손하게 제자의례를 치렀다. 로자는 곧바로 장생지도(長生之道)의 밀방을 령윤희에게 전수하여 주었다. 령윤희는 또 로자를 향해 더 한총의 교도훈계(教导訓誡)를 청구하였다. 로자는 곧 5천자를 구술하였고 령윤희는 돌아간후 적어두었다. 이것이 바로 로자의 저명한 고전(經典) 《도덕경》이다.

령윤희는 로자의 가르침에 따라 수련하여 과연 그도 신선으로 되였다.

기실 로자 및 그가 남긴 《도덕경》은 모두 사람들에게 도(道)와 수련의 문화를 전하려는 것이다. 도

31

“선생님, 선생님은 리선생님과 달라요! 리선생님은 줄곧 그에게 무엇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았는가를 물어요. 그가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교육받기 힘들다’고 그를 욕해요.” “우리 중급학년의 선생님들은 늘 그를 때리면서 말하기를 그가 게으르고 또한 공부도 차하고 수업시간을 뺑소니칠줄 밖에 모른다고 욕해요.” 그들의 말에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도 자신이 너무나도 해이한 것이 아닌가고 의심하였고 학생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닌가고도 생각하였다.

몇주일 지나서 나는 이 녀자아이의 학습성적이 정말로 말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숙제는 거의 자기 스스로 완성할 수 없었다. 어느 하루 나는 그의 곁에 다가가서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공부를 선생님이 도와줄까?” 그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하자, 집에 돌아가면 너에게 숙제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점심시간에 동학들더러 너를 도와 수업이 힘든 부분을 완성해주면 좋지 않겠니?” 그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쳤으면 좋겠니?” 그는 생각하더니 몇명의 이름을 말하였다.

하여 학생들의 동의를 거친후 그들이 점심잠을 자지 않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더러 룸번으로 녀자아

6

느냐?” 말을 마치자 서갑더러 얼굴을 땅에 향하고 입을 벌리라고 하자 그 ‘태현진부(太玄真符)’가 즉시로 뿐어나왔는데 부작 위의 주사(朱砂)글체는 방금 쓴 것과 같았으며 서갑은 단번에 한구의 백골로 변하였다.

령윤희는 로자가 신인인것을 알고 바로 엎들여 절하면서 서갑을 위해 사정하였고 아울러 자원하여 로자를 대신하여 빛을 갚겠다고 하였다. 로자가 그 태현진부를 다시 서갑에게 던져주자 서갑은 즉시로 부활하였다. 령윤희는 서갑에게 2백 만전을 주고 그를 되돌려보냈다. 령윤희는 로자를 향해 공손하게 제자의례를 치렀다. 로자는 곧바로 장생지도(長生之道)의 밀방을 령윤희에게 전수하여 주었다. 령윤희는 또 로자를 향해 더 한총의 교도훈계(敎導訓誡)를 청구하였다. 로자는 곧 5천자를 구술하였고 령윤희는 돌아간후 적어두었다. 이것이 바로 로자의 저명한 고전(經典) 《도덕경》이다.

령윤희는 로자의 가르침에 따라 수련하여 과연 그도 신선으로 되였다.

기실 로자 및 그가 남긴 《도덕경》은 모두 사람들에게 도(道)와 수련의 문화를 전하려는 것이다. 도

31

빛졌다. 서갑은 로자가 출관하여 멀리 떠나려는 것을 보고 될수록 빨리 자기의 품값을 재촉해 받으려고 하였지만 또한 받지 못할가봐 두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 소송장을 써서 령윤희가 있는 곳에 고소하였다. 서갑을 대신하여 소송장을 쓴 사람은 서갑이 이미 로자를 2백여년 따른 것을 모르고 다만 그가 만약 로자가 빚진 품값을 받아 가진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여 서갑에게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대답하였다. 서갑은 그 녀자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자 더욱 기뻐하면서 로자를 고소한 소송장을 령윤희에게 올려바쳤다.

령윤희는 소송장을 보자 몹시 놀라 바로 로자에게 알렸다. 로자는 서갑에게 말하기를: “너는 언녕 죽었어야 했다. 내가 당초에 벼슬이 작고 집이 가난하여 나를 도와 잡일을 할 사람도 없으니 너를 고용하고 동시에 바로 ‘태현청생부(太玄清生符)’를 너에게 주었기에 너는 비로서 오늘까지 살수 있었던 것이다. 너는 무엇때문에 나를 소송하느냐? 내가 그 당시 너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네가 장래에 ‘안식국(安息國)’에 들어가면 그때에 나는 황금으로 너의 품값을 계산하여 전액을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너는 왜서 이렇게도 급하여 기다리지 못하

30

이를 둘째 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숙제는 당날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숙제를 바치지 못하는 정황이 극히 적었다. 만일 정말로 잊어먹고 쓰지 못하여도 나는 그에게 기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학시간에 빠뜨린 숙제를 다하여 나에게 가져오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역시 확실히 노력하였다.

비록 시험성적은 여전히 리상적이 아니였지만 나는 그가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흙판에 숙제를 바치지 않은 명단도 그더러 기록하게 하였다. 중임을 맡긴후 그는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히 먼저 수업을 완성하였다. 심지어 주동적으로 나를 도와 바치지 않은 숙제를 모두 거두어주었다.

하루는 한 학생이 그의 이런 변화를 보고 조용히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전엔 자기 숙제도 쓰지 않아서 날마다 육을 먹고 늘 뺑소니쳤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다니… …” 나의 마음속에는 한가닥의 따스함이 몰려왔다.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한테 “뺑소니 학생”으로부터 오늘의 “제일 좋은 도움이”로 변한 것을 보니 참말로 하늘에 감사드리고 아이에게 감사드린다!

7



빛졌다. 서갑은 로자가 출관하여 멀리 떠나려는 것을 보고 될수록 빨리 자기의 품값을 재촉해 받으려고 하였지만 또한 받지 못할가봐 두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 소송장을 써서 령윤희가 있는 곳에 고소하였다. 서갑을 대신하여 소송장을 쓴 사람은 서갑이 이미 로자를 2백여년 따른 것을 모르고 다만 그가 만약 로자가 빚진 품값을 받아 가진다면 부자가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여 서갑에게 딸을 시집보내겠다고 대답하였다. 서갑은 그 녀자가 아주 아름다운 것을 보자 더욱 기뻐하면서 로자를 고소한 소송장을 령윤희에게 올려바쳤다.

령윤희는 소송장을 보자 몹시 놀라 바로 로자에게 알렸다. 로자는 서갑에게 말하기를: “너는 언녕 죽었어야 했다. 내가 당초에 벼슬이 작고 집이 가난하여 나를 도와 잡일을 할 사람도 없으니 너를 고용하고 동시에 바로 ‘태현청생부(太玄清生符)’를 너에게 주었기에 너는 비로서 오늘까지 살수 있었던 것이다. 너는 무엇때문에 나를 소송하느냐? 내가 그 당시 너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 네가 장래에 ‘안식국(安息國)’에 들어가면 그때에 나는 황금으로 너의 품값을 계산하여 전액을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너는 왜서 이렇게도 급하여 기다리지 못하

30

이를 둘째 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숙제는 당날에 완수할수 있었으며 숙제를 바치지 못하는 정황이 극히 적었다. 만일 정말로 잊어먹고 쓰지 못하여도 나는 그에게 기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학시간에 빠뜨린 숙제를 다하여 나에게 가져오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역시 확실히 노력하였다.

비록 시험성적은 여전히 리상적이 아니였지만 나는 그가 이미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흙판에 숙제를 바치지 않은 명단도 그더러 기록하게 하였다. 중임을 맡긴후 그는 더욱 성실하고 부지런히 먼저 수업을 완성하였다. 심지어 주동적으로 나를 도와 바치지 않은 숙제를 모두 거두어주었다.

하루는 한 학생이 그의 이런 변화를 보고 조용히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전엔 자기 숙제도 쓰지 않아서 날마다 육을 먹고 늘 뺑소니쳤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일깨워주다니… …” 나의 마음속에는 한가닥의 따스함이 몰려왔다. 한 아이가 담임선생님한테 “뺑소니 학생”으로부터 오늘의 “제일 좋은 도움이”로 변한 것을 보니 참말로 하늘에 감사드리고 아이에게 감사드린다!

7



학기가 결속되어 나는 결석기록을 통계할때 발견하였는데 이 녀학생은 단 한번밖에 결석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아이를 믿었더니 바꾸어 온 것은 아이가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임을 생각지도 못하였다.

【인물채방】 18년을 기다린 혼례



【혜원】
2004년 8월 7일 코네티컷 주(康涅狄格州) 중부의 작은 진 말버러(玛保柔)의 한 교회당에

서 한쌍의 중년 서방인이 결혼행진곡에 맞추어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의 웃음의 만끽하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 향촌마을에서의 전형적인 서양식 교당혼례였다. 신랑과 신부는 보기에도 매우 순수했다. 하지만 그들이 화목하게 18년을 동거한후 오늘에야 비로서 신의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림은 캐론(凱伦)과 제임스(詹姆斯)가 결혼식후 교회당에서

8

데없고 짐작할수 없으면 나는 그를 뒤따르거나 불잡을 방법이 없다. 내가 로자를 만나자 그의 사상경계는 마치 태허속에서 날아다니는 풍처럼 느껴졌으며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도 말할수 없게 하였고 혀를 내보낸채로 역시 들어넣을수 없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당황하여 그가 도대체 사람인지 신인지를 모르겠다.”

◎ 《도덕경》 배후의 의야기

로자는 관문을 나가 서행하여(出关西去) 곤륜산(昆仑山)에 오르려고 하였다. 관문을 지키는 령윤희(令尹喜)는 점을 쳐서 신인(神人)이 여기를 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시켜 40리 길을 깨끗이 쓸고 영접하려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로자가 왔다.

로자는 출행한 이래 중원(中原)일대에서 아무것도 전수하지 않았다. 그는 령윤희(令尹喜)가 도를 얻는 것이 명에 정해져 있음을 알고 바로 거기에서 멈췄다. 서갑(徐甲)이란 사람이 있는데 소년때부터 로자에게 고용되어 심부름군으로 일하였다. 로자는 날마다 응당 그에게 백전(一百钱)을 주어야 하는데 모두 7백 2십만전(七百二十万钱)이라는 품값을 그에게

29

학기가 결속되어 나는 결석기록을 통계할때 발견하였는데 이 녀학생은 단 한번밖에 결석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아이를 믿었더니 바꾸어 온 것은 아이가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임을 생각지도 못하였다.

【인물채방】 18년을 기다린 혼례



【혜원】
2004년 8월 7일 코네티컷 주(康涅狄格州) 중부의 작은 진 말버러(玛保柔)의 한 교회당에

서 한쌍의 중년 서방인이 결혼행진곡에 맞추어 친척과 친구들의 축하의 웃음의 만끽하면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 향촌마을에서의 전형적인 서양식 교당혼례였다. 신랑과 신부는 보기에도 매우 순수했다. 하지만 그들이 화목하게 18년을 동거한후 오늘에야 비로서 신의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으로 하여금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를 알려고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그림은 캐론(凯伦)과 제임스(詹姆斯)가 결혼식후 교회당에서

8

데없고 짐작할수 없으면 나는 그를 뒤따르거나 불잡을 방법이 없다. 내가 로자를 만나자 그의 사상경계는 마치 태허속에서 날아다니는 풍처럼 느껴졌으며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도 말할수 없게 하였고 혀를 내보낸채로 역시 들어넣을수 없어 나로 하여금 마음이 당황하여 그가 도대체 사람인지 신인지를 모르겠다.”

◎ 《도덕경》 배후의 의야기

로자는 관문을 나가 서행하여(出关西去) 곤륜산(昆仑山)에 오르려고 하였다. 관문을 지키는 령윤희(令尹喜)는 점을 쳐서 신인(神人)이 여기를 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사람을 시켜 40리 길을 깨끗이 쓸고 영접하려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로자가 왔다.

로자는 출행한 이래 중원(中原)일대에서 아무것도 전수하지 않았다. 그는 령윤희(令尹喜)가 도를 얻는 것이 명에 정해져 있음을 알고 바로 거기에서 멈쳤다. 서갑(徐甲)이란 사람이 있는데 소년때부터 로자에게 고용되어 심부름군으로 일하였다. 로자는 날마다 응당 그에게 백전(一百钱)을 주어야 하는데 모두 7백 2십만전(七百二十万钱)이라는 품값을 그에게

29

람이며 성은 리씨이고 이름은 중이(重耳)이고 자는 백양(伯阳)이다. 전설에 그의 어머니는 어느 한번 하늘에서 큰 류성(流星)이 날아가는 것을 본후 바로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로자는 천지개벽전에 태여났으며 하늘의 정령신백(精靈神魄)이다. 상계(上界)의 신령지기(神靈之氣)가 리가(李家)에 나타났으므로 로자는 태여난 후 인간의 리씨 성을 썼다. 로자의 어머니는 그를 72년이나 품고나서 왼쪽 겨등랑을 가르고 그를 낳았는데 태여나자마자 그는 백발이 성성하였다. 또 기재에 의하면 로자의 어머니는 신통히도 리수(李樹)아래에서 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로자는 태여나자마자 바로 말할수 있었으며 리수(李樹)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나의 성으로 할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로자를 평가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사유가 나는 새처럼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가히 나의 화살처럼 준획하고 예리한 론점으로 그를 쏘고 그를 굴복시킬수 있다. 만약 대방의 사상이 미록(麋鹿)처럼 구속없이 질주한다면 나는 가히 사냥개로 그를 따라잡아 꼭 그로 하여금 나의 론점에 의해 정복되게 할수 있다. 만약 대방의 사상이 물고기처럼 리론의 심연(深淵)속에 해염치며 노닌다면 나는 가히 낚시고리로 그를 불잡을수 있다. 하지만 만약 대방의 사상이 룽처럼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아 태허환경(太虛幻境)을 날아다니고 온데간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데 구태여 서로 엮매여야 하는가?

1986년 그해 23살 캐론 니콜스(Karen Nichols)와 26살 제임스 빙진스키(James Bendzinski)는 첫눈에 반하여 서로 만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캐론과 함께 주숙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결혼하여 이사가자 제임스는 캐론의 아빠트에 이사하여 그와 동거하였다. 1998년 그들 두사람은 미들타운(Middletown)에다 한채의 단층집을 샀다.

캐론은 기독교가정에서 태여났으며 다섯자녀중 셋째였다. 한 지방은행에서 종재 조수사업을 하는 그는 또한 클라리넷(单簧管)을 부는 음악가이고 늘 당시의 연출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멀타기를 아주 즐겼다. 제임스는 11명 자녀가 있는 천주교가정에서 태여났으며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은 집에 뻬끼칠하는 것과 전자홀음 DJ였다.

서로가 종교배경이 짙은 가정에서 자란 캐론과 제임스는 오히려 현대 전형적인 서양련인들이 사귀는 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도리여 종이장 하나에 엮매인 혼인형식의 속박을 접수하기 싫어 하였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출곧 기독교에서 혼인에

람이며 성은 리씨이고 이름은 중이(重耳)이고 자는 백양(伯阳)이다. 전설에 그의 어머니는 어느 한번 하늘에서 큰 류성(流星)이 날아가는 것을 본후 바로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로자는 천지개벽전에 태여났으며 하늘의 정령신백(精靈神魄)이다. 상계(上界)의 신령지기(神靈之氣)가 리가(李家)에 나타났으므로 로자는 태여난 후 인간의 리씨 성을 썼다. 로자의 어머니는 그를 72년이나 품고나서 왼쪽 겨등랑을 가르고 그를 낳았는데 태여나자마자 그는 백발이 성성하였다. 또 기재에 의하면 로자의 어머니는 신통히도 리수(李樹)아래에서 로자를 낳았다고 하였다. 로자는 태여나자마자 바로 말할수 있었으며 리수(李樹)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나의 성으로 할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로자를 평가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사유가 나는 새처럼 구속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가히 나의 화살처럼 준획하고 예리한 론점으로 그를 쏘고 그를 굴복시킬수 있다. 만약 대방의 사상이 미록(麋鹿)처럼 구속없이 질주한다면 나는 가히 사냥개로 그를 따라잡아 꼭 그로 하여금 나의 론점에 의해 정복되게 할수 있다. 만약 대방의 사상이 물고기처럼 리론의 심연(深淵)속에 해염치며 노닌다면 나는 가히 낚시고리로 그를 불잡을수 있다. 하지만 만약 대방의 사상이 룽처럼 구름을 타고 안개를 몰아 태허환경(太虛幻境)을 날아다니고 온데간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데 구태여 서로 엮매여야 하는가?

1986년 그해 23살 캐론 니콜스(Karen Nichols)와 26살 제임스 빙진스키(James Bendzinski)는 첫눈에 반하여 서로 만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 캐론과 함께 주숙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결혼하여 이사가자 제임스는 캐론의 아빠트에 이사하여 그와 동거하였다. 1998년 그들 두사람은 미들타운(Middletown)에다 한채의 단층집을 샀다.

캐론은 기독교가정에서 태여났으며 다섯자녀중 셋째였다. 한 지방은행에서 종재 조수사업을 하는 그는 또한 클라리넷(单簧管)을 부는 음악가이고 늘 당시의 연출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멀타기를 아주 즐겼다. 제임스는 11명 자녀가 있는 천주교가정에서 태여났으며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은 집에 뻬끼칠하는 것과 전자홀음 DJ였다.

서로가 종교배경이 짙은 가정에서 자란 캐론과 제임스는 오히려 현대 전형적인 서양련인들이 사귀는 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도리여 종이장 하나에 엮매인 혼인형식의 속박을 접수하기 싫어 하였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출곧 기독교에서 혼인에

대한 교육을 접수할수 없었다. 마치 너자는 결혼만 하면 남편의 부속품으로 되여버리는것 같아 나는 그 누구의 재산으로 되여버리는 것이 싫었다. 나는 줄곧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였으며 학창시절부터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는 말하기를: “천주교에서 혼인에 관한 설법은 나에 대하여 종래로 전혀 영향이 없었다. 내가 볼 때엔 신의 뜻을 따르는 혼인은 사람에게 그 어떤 좋은 점도 가져다주지 않았으며 현재의 리혼률은 50%이고 혼인중에도 여려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여 행복하다면 굳이 결혼해야 하는가? 나와 캐론이 이렇게 생활하여 부부와 같다면 그 무슨 종이장 증명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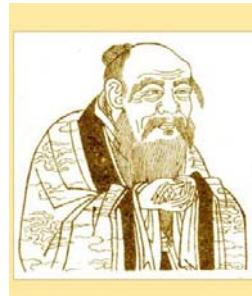
◎ 서로 사랑하면서 왜 얹매우려 하지 않는가?

언젠가 모르게 늘 만족감에 즐겨있던 이 두 련인은 점점 생활속에 무엇인가 결핍함을 느꼈다. 제임스는 늘 모 클럽에 가서 태권도를 연습하였다. “그곳은 남성구락부 같았다. 그 사람들은 리혼하였거나 아니면 리혼하지 않았거나를 물론하고 모두가 자기의 전 부인 혹은 마누라의 잘못을 수다스레 늘어 놓으면서 혼인은 여하하게 좋지 않다고 원망하였다. 나는 때론 생각하였다. 내가 들은 것은 한쪽 말

지 인심을 진감시키는 소식을 보았다 : 스페인(西班牙)국가 법정에서 일전에 판정(裁定)을 내렸다. “군체멸절죄(群体灭绝罪)” 및 “혹형죄(酷刑罪)”로 파룬궁을 박해한 제일 악한 강택민(江澤民) 및 라간(罗干)、박희래(薄熙来)、갑경림(贾庆林)、오관정(吴官正)등 5 명의 중공관원을 기소하였다. 스페인의 이 기소는 획기적인 의의가 있으며 중국민간을 고무하였고 중공고총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국제사회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멀지 않는 장래에 인민의 피땀으로 인터넷 베를린장벽(柏林牆)을 건립한 그런 중공관원들은 역시 가능하게 강택민따위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법률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해외우체통으로 ip@dongtaiwang.com 에 전자 우편을 보내면, 10분내에 몇개의 IP를 얻을수 있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진실한 세상을 보자!



【전통문화】

로자 와 도덕경

◎로자의 전설

로자는 춘추시대 초나라 고현(苦县) 곡인리 (曲仁里)의 사

대한 교육을 접수할수 없었다. 마치 너자는 결혼만 하면 남편의 부속품으로 되여버리는것 같아 나는 그 누구의 재산으로 되여버리는 것이 싫었다. 나는 줄곧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였으며 학창시절부터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는 말하기를: “천주교에서 혼인에 관한 설법은 나에 대하여 종래로 전혀 영향이 없었다. 내가 볼 때엔 신의 뜻을 따르는 혼인은 사람에게 그 어떤 좋은 점도 가져다주지 않았으며 현재의 리혼률은 50%이고 혼인중에도 여려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로 사랑하여 행복하다면 굳이 결혼해야 하는가? 나와 캐론이 이렇게 생활하여 부부와 같다면 그 무슨 종이장 증명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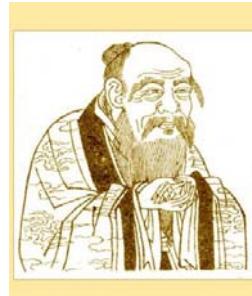
◎ 서로 사랑하면서 왜 얹매우려 하지 않는가?

언젠가 모르게 늘 만족감에 즐겨있던 이 두 련인은 점점 생활속에 무엇인가 결핍함을 느꼈다. 제임스는 늘 모 클럽에 가서 태권도를 연습하였다. “그곳은 남성구락부 같았다. 그 사람들은 리혼하였거나 아니면 리혼하지 않았거나를 물론하고 모두가 자기의 전 부인 혹은 마누라의 잘못을 수다스레 늘어 놓으면서 혼인은 여하하게 좋지 않다고 원망하였다. 나는 때론 생각하였다. 내가 들은 것은 한쪽 말

지 인심을 진감시키는 소식을 보았다 : 스페인(西班牙)국가 법정에서 일전에 판정(裁定)을 내렸다. “군체멸절죄(群体灭绝罪)” 및 “혹형죄(酷刑罪)”로 파룬궁을 박해한 제일 악한 강택민(江澤民) 및 라간(罗干)、박희래(薄熙来)、갑경림(贾庆林)、오관정(吴官正)등 5 명의 중공관원을 기소하였다. 스페인의 이 기소는 획기적인 의의가 있으며 중국민간을 고무하였고 중공고총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국제사회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멀지 않는 장래에 인민의 피땀으로 인터넷 베를린장벽(柏林牆)을 건립한 그런 중공관원들은 역시 가능하게 강택민따위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법률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해외우체통으로 ip@dongtaiwang.com 에 전자 우편을 보내면, 10분내에 몇개의 IP를 얻을수 있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진실한 세상을 보자!



【전통문화】

로자 와 도덕경

◎로자의 전설

로자는 춘추시대 초나라 고현(苦县) 곡인리 (曲仁里)의 사

늦추었다. 하지만 금년에 중공이 인민을 괴롭히고 재물을 탕진하는 “60 주년 대경축” 이후 옥전 인터넷 봉쇄를 늦추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하여 해외에서 “담을 넘는 소프트웨어(软件)”를 개발하는 기술전문가들은 부단히 “담을 넘는 소프트웨어”를 간신히 있다 (례하면 자유문, 무계등) .

무엇때문에 중공은 이렇게도 불안해하는가? 왜냐하면 해외매체에서 적발 폭로한 중공이



몇십년래 중국인민에게 범한 죄행을 일단 중국인민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철저히 중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공안의 그런 죄악이 극도에 달한 사람들을 청산할 것이다.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본신이 곧바로 범죄 행위이고 사람들의 지정권(知情权)을 박탈하였으며 사람들의 언론자유권을 박탈하였다.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함으로서 중국의 누리꾼들은 세계상의 2 등 누리꾼으로 되었으며 인터넷에 오르려면 오직 “담을 넘어” 야만이 비로서 진상을 료해하고 밖의 진실한 세계를 료해할수 있다.

최근 몇일, 중국 누리꾼들은 “담을 넘어” 한가

늦추었다. 하지만 금년에 중공이 인민을 괴롭히고 재물을 탕진하는 “60 주년 대경축” 이후 옥전 인터넷 봉쇄를 늦추는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하여 해외에서 “담을 넘는 소프트웨어(软件)”를 개발하는 기술전문가들은 부단히 “담을 넘는 소프트웨어”를 간신히 있다 (례하면 자유문, 무계등) .

무엇때문에 중공은 이렇게도 불안해하는가? 왜냐하면 해외매체에서 적발 폭로한 중공이



몇십년래 중국인민에게 범한 죄행을 일단 중국인민들이 안다면 사람들은 철저히 중공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중공안의 그런 죄악이 극도에 달한 사람들을 청산할 것이다.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하는 본신이 곧바로 범죄 행위이고 사람들의 지정권(知情权)을 박탈하였으며 사람들의 언론자유권을 박탈하였다. 중공이 인터넷을 봉쇄함으로서 중국의 누리꾼들은 세계상의 2 등 누리꾼으로 되었으며 인터넷에 오르려면 오직 “담을 넘어” 야만이 비로서 진상을 료해하고 밖의 진실한 세계를 료해할수 있다.

최근 몇일, 중국 누리꾼들은 “담을 넘어” 한가

일뿐 그들의 다른 한쪽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를 알수 없었다. 아니나다를가 하루는 한 동료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늘 자기의 바람피우는 마누라를 욕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 자신이 먼저 바람피웠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일을 많이 겪자 어느 하루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잠간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내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혼인에 대한 실망과 혼인이 파arel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사실상 나는 결코 그들처럼 그렇게 안해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생활속에서 큰 모순을 벌어놓지 않을 것이다. 캐론과 함께 있는 나날에 우리들은 힘껏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였으며 설사 생활속에서 마찰이 생겼더라도 우리는 역시 대방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왜 혼인이 파arel될가봐 근심하는가? 나 역시 늘 생각하고 있었다 : 영원히 동거상태를 유지하면 캐론에 대하여 공평한가?

“하루 아침, 나와 캐론과 함께 파룬궁의 몇조 공법을 연습하였는데 나는 자신의 정신이 매우 맑음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이 문제를 참답게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나는 스스로 조용하면서 또 한 견결하게 캐론에게 말하였다. ‘나한테 시집와 주오.’ ”

일뿐 그들의 다른 한쪽은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를 알수 없었다. 아니나다를가 하루는 한 동료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늘 자기의 바람피우는 마누라를 욕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 자신이 먼저 바람피웠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일을 많이 겪자 어느 하루 나는 갑자기 생각났다. 잠간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내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것은 혼인에 대한 실망과 혼인이 파arel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사실상 나는 결코 그들처럼 그렇게 안해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생활속에서 큰 모순을 벌어놓지 않을 것이다. 캐론과 함께 있는 나날에 우리들은 힘껏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였으며 설사 생활속에서 마찰이 생겼더라도 우리는 역시 대방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왜 혼인이 파arel될가봐 근심하는가? 나 역시 늘 생각하고 있었다 : 영원히 동거상태를 유지하면 캐론에 대하여 공평한가?

“하루 아침, 나와 캐론과 함께 파룬궁의 몇조 공법을 연습하였는데 나는 자신의 정신이 매우 맑음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이 문제를 참답게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나는 스스로 조용하면서 또 한 견결하게 캐론에게 말하였다. ‘나한테 시집와 주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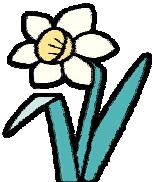
뭐라고요? 기자는 저도 모르게 놀랐다. 파룬궁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직껏 파룬궁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더러 하루 빨리 청혼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시집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 “파룬궁”을 세번 만났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대략 6년 전부터의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1998년 8월 캐론과 제임스는 스위스(瑞士)에 가서 한 녀자친구 혼례식에 참석하였다. 예터보리(歌德堡)의 한 공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종의 공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다. 캐론은 그 즉시로 깊이 흡인되었는데 한 녀자아이가 그에게 이것은 파룬궁이라고 알려주면서 아울러 그에게 련공을 가르쳐주었다.

다음해 여름 캐론과 제임스는 캐나다의 몬트리올(蒙特利爾)로 재즈(爵士)음악회에 참가하러 갔다. 중국거리 가까이에 있는 한 공원에서 또 파룬궁을 보았다. 캐론은 기뻐하면서 달려가 또 한번 배웠다. 당시에 생각하기를: “적어도 몬트리올은 스위스보다 훨씬 가깝다.”

2000년 3월 캐론과 제임스는 2시간 걸리는 메사츄세츠주(麻州)북쪽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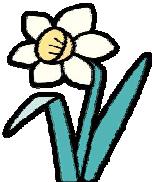
뭐라고요? 기자는 저도 모르게 놀랐다. 파룬궁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직껏 파룬궁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더러 하루 빨리 청혼하게 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시집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었다.

◎ “파룬궁”을 세번 만났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대략 6년 전부터의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1998년 8월 캐론과 제임스는 스위스(瑞士)에 가서 한 녀자친구 혼례식에 참석하였다. 예터보리(歌德堡)의 한 공원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종의 공법을 연마하는 것을 보았다. 캐론은 그 즉시로 깊이 흡인되었는데 한 녀자아이가 그에게 이것은 파룬궁이라고 알려주면서 아울러 그에게 련공을 가르쳐주었다.

다음해 여름 캐론과 제임스는 캐나다의 몬트리올(蒙特利爾)로 재즈(爵士)음악회에 참가하러 갔다. 중국거리 가까이에 있는 한 공원에서 또 파룬궁을 보았다. 캐론은 기뻐하면서 달려가 또 한번 배웠다. 당시에 생각하기를: “적어도 몬트리올은 스위스보다 훨씬 가깝다.”

2000년 3월 캐론과 제임스는 2시간 걸리는 메사츄세츠주(麻州)북쪽 행



였지만 페이스북과 Twitter 및 YouTube 등 사교(社交)인터넷들은 중국에서 봉쇄되었다. 독일신문사(德新社) 보도에 의하면 한 대륙의 Twitter 사용자(用户)의 통담을 인용하였는데 오바마가 중국에서 그의 Twitter를 간신하려면 역시 중국의 방화벽(防火牆)을 넘어야한다.

오바마가 만약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르려면 그도 역시 “담을 넘어”야 한다는 표현은 바로 이른바 “중국특색”이며 이런 중국특색은 세계상 제일 많은 인터넷 누리꾼(网民)들의 비애(悲哀)를 체현하였고 또 중공의 사유가 굳어졌음을 반영하였으며 정보 자유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였다. 이는 “60주년 대경축”에서 표현하려 하는 “강대함”과는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았으며 태평을 분칠하는 배후에는 거짓된 강대함일 것이다.

중공의 내심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자료통신의 자유운동을 두려워하는가? 또한 로골적으로 오바마 연설중 인터넷 자유방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는가? 이는 사실상 역시 사람들에게 중공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요즘 어떤 친구가 물었다. 지금 중국의 인터넷 봉쇄는 경해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중공의 예전 행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른바 “민감일” 전에는 인터넷 봉쇄를 다그치고 “민감일”이 지난후엔 조금

였지만 페이스북과 Twitter 및 YouTube 등 사교(社交)인터넷들은 중국에서 봉쇄되었다. 독일신문사(德新社) 보도에 의하면 한 대륙의 Twitter 사용자(用户)의 통담을 인용하였는데 오바마가 중국에서 그의 Twitter를 간신하려면 역시 중국의 방화벽(防火牆)을 넘어야한다.

오바마가 만약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르려면 그도 역시 “담을 넘어”야 한다는 표현은 바로 이른바 “중국특색”이며 이런 중국특색은 세계상 제일 많은 인터넷 누리꾼(网民)들의 비애(悲哀)를 체현하였고 또 중공의 사유가 굳어졌음을 반영하였으며 정보 자유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였다. 이는 “60주년 대경축”에서 표현하려 하는 “강대함”과는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았으며 태평을 분칠하는 배후에는 거짓된 강대함일 것이다.

중공의 내심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자료통신의 자유운동을 두려워하는가? 또한 로골적으로 오바마 연설중 인터넷 자유방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는가? 이는 사실상 역시 사람들에게 중공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요즘 어떤 친구가 물었다. 지금 중국의 인터넷 봉쇄는 경해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중공의 예전 행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른바 “민감일” 전에는 인터넷 봉쇄를 다그치고 “민감일”이 지난후엔 조금

하였다. 또 한동안 지나서 녀동생은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참으로 신기해요. 삼촌은 뜻밖에도 나아져 예전과 같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언니와 함께 수련하겠대요.”

파룬따파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한한 생명의 희망을 열어주었다. 생명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고 “대법은 좋다”를 기억하면 진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의 심연속에서 멀리하게 한다. (문/왕호천)

【시사열담】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그도“담을 넘어”야 한다

문 / 룽연

【명혜망】 미국 총통 오바마는 10월 16일 상해의 한 미국식 진민(镇民)대회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문답형식의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중국당국에 의하여 원천봉쇄되었고 뜯어 고쳐졌다. 이 회견을 현장방송하는 미국 화이트하우스 인터넷 Whitehouse.gov 마저도 북경에서 인터넷에 올라보는 것이 온정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반영하기를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려 하나 혹은 소리를 들으려 하여도 아주 힘들다고 하였다. 비록 화이트하우스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Facebook)화면에서도 방송하

24

프턴(汉普顿)시에 가서 건강박람회에 참석하였는데 놀랍게도 파룬궁의 진렬장소를 발견하고 캐론은 코네티켓주(康州)의 파룬궁연락인이 적혀있는 전단지 한장을 받았다. 전화로 문의하여 알게 되였는데 자신의집 있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바로 한 파룬궁학원의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보이지 않은 속에 이미 안배되어 있는것 같았는데 나는 이때로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캐론은 파룬궁을 수련한 이후 어릴적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천식병이 발작하지 않았으며 병투성으로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으로 되였다. 가장 큰 수학은 심령의 평온함이였다. “사업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늘 많은 시비가 있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들었거나 부딪쳤을 때 전혀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는 참으로 천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임스는 캐론이 파룬궁을 수련한지 일년후에야 비로서 련공을 시작하였다. 그는 련공하여 그에게 가져다준 제일 좋은 점은 곧 바로 정신이 맑아지고 사업효률이 제고 되고 그를 도와 인생의 방향을 똑똑히 보게 한 것이라고 여겼다. 캐론에게 청혼한 결정도 바로 이와 관련이 되였다.

13

하였다. 또 한동안 지나서 녀동생은 즐거워하면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참으로 신기해요. 삼촌은 뜻밖에도 나아져 예전과 같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언니와 함께 수련하겠대요.”

파룬따파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한한 생명의 희망을 열어주었다. 생명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고 “대법은 좋다”를 기억하면 진정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의 심연속에서 멀리하게 한다. (문/왕호천)

【시사열담】

오바마가 중국에서 인터넷에 오른다면 그도“담을 넘어”야 한다

문 / 룽연

【명혜망】 미국 총통 오바마는 10월 16일 상해의 한 미국식 진민(镇民)대회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문답형식의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그의 연설은 중국당국에 의하여 원천봉쇄되었고 뜯어 고쳐졌다. 이 회견을 현장방송하는 미국 화이트하우스 인터넷 Whitehouse.gov 마저도 북경에서 인터넷에 올라보는 것이 온정하지 못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반영하기를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려 하나 혹은 소리를 들으려 하여도 아주 힘들다고 하였다. 비록 화이트하우스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Facebook)화면에서도 방송하

24

프턴(汉普顿)시에 가서 건강박람회에 참석하였는데 놀랍게도 파룬궁의 진렬장소를 발견하고 캐론은 코네티켓주(康州)의 파룬궁연락인이 적혀있는 전단지 한장을 받았다. 전화로 문의하여 알게 되였는데 자신의집 있는 곳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바로 한 파룬궁학원의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보이지 않은 속에 이미 안배되어 있는것 같았는데 나는 이때로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캐론은 파룬궁을 수련한 이후 어릴적부터 그를 따라다니던 천식병이 발작하지 않았으며 병투성으로부터 신체가 건강한 사람으로 되였다. 가장 큰 수학은 심령의 평온함이였다. “사업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는 늘 많은 시비가 있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들었거나 부딪쳤을 때 전혀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는 참으로 천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제임스는 캐론이 파룬궁을 수련한지 일년후에야 비로서 련공을 시작하였다. 그는 련공하여 그에게 가져다준 제일 좋은 점은 곧 바로 정신이 맑아지고 사업효률이 제고 되고 그를 도와 인생의 방향을 똑똑히 보게 한 것이라고 여겼다. 캐론에게 청혼한 결정도 바로 이와 관련이 되였다.

13

◎ 등불이 조락되어 가는 곳

2004년 한 봄날아침 제임스는 캐론과 함께 련공을 마친후 그에게 청혼하자 캐론은 놀랍기도 하고 또 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사실상 파룬궁을 수련한후 그의 인생관은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는 동반자와 더욱 친밀한 감정을 유지할 것을 갈망하였고 책임을 바치고 일생을 맡기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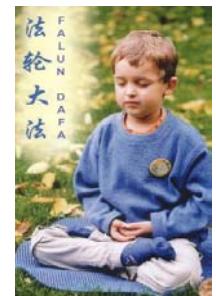
“나도 어떤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결정한 그 시각부터 나의 생활은 이렇게도 아름답게 변하였으며 이것은 나의 생명에서 일어난 제일 좋은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기억속에 몇달전 한 학원이 나더러 결혼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으며 아울러 말하기를 파룬궁에서의 가르침은 함께 생활하는 련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속을 얻을 것을 제창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시에 자기 스스로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생활하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지금 나는 이 종이장 결혼증서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이렇게 미묘한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였다.”

신혼여행을 갔다온후 캐론은 비로서 무엇때문에 그 얇은 종이장에 비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되었다. “오늘 사회속의 일원이거나 혹은 파룬

로 큰 희망을 가지지 말거라.”

하지만 한가닥의 희망을 생각하니 나는 그래도 전화기를 들고 국제 장거리전화를 걸었다. 삼촌은 한창 마작을 놀고 있었다. 나의 목소리를 듣더니 아주 기뻐하였다. 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삼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적에 삼촌이 나에게 가르친 한가닥의 희망말이예요. 오직 한가닥의 희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 삼촌은 아주 조용히 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마지막에 나는 삼촌에게 알려주었다: “꼭 ‘파룬따파는 좋다’를 많이 읽으세요. 우리 함께 노력하여 삼촌한테 행복을 빌게요.” 삼촌은 듣고나서 몹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중에서 그래도 니가 제일 사리밝구나. 나는 니가 하라는대로 날마다 ‘대법은 좋다’를 읽겠다.”

나는 또 전화를 걸어 아주머니와 동생들에게 꼭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많이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가능하게 나의 견지와 진심때문인지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후 꿈에서 똑똑히 보았는데 삼촌의 얼굴엔 홍조가 띄여있었고 또 손으로 《전법륜》을 가리키면서 그도 배우겠다고 말



◎ 등불이 조락되어 가는 곳

2004년 한 봄날아침 제임스는 캐론과 함께 련공을 마친후 그에게 청혼하자 캐론은 놀랍기도 하고 또 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사실상 파룬궁을 수련한후 그의 인생관은 이미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는 동반자와 더욱 친밀한 감정을 유지할 것을 갈망하였고 책임을 바치고 일생을 맡기려 하였다.

“나도 어떤영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을 결정한 그 시각부터 나의 생활은 이렇게도 아름답게 변하였으며 이것은 나의 생명에서 일어난 제일 좋은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기억속에 몇달전 한 학원이 나더러 결혼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으며 아울러 말하기를 파룬궁에서의 가르침은 함께 생활하는 련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수속을 얻을 것을 제창하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당시에 자기 스스로 그 누구도 나를 어떻게 생활하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지금 나는 이 종이장 결혼증서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이렇게 미묘한 것이라는 것을 체득하였다.”

신혼여행을 갔다온후 캐론은 비로서 무엇때문에 그 얇은 종이장에 비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천천히 알게 되었다. “오늘 사회속의 일원이거나 혹은 파룬

로 큰 희망을 가지지 말거라.”

하지만 한가닥의 희망을 생각하니 나는 그래도 전화기를 들고 국제 장거리전화를 걸었다. 삼촌은 한창 마작을 놀고 있었다. 나의 목소리를 듣더니 아주 기뻐하였다. 나는 그에게 알려주었다: “삼촌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적에 삼촌이 나에게 가르친 한가닥의 희망말이예요. 오직 한가닥의 희망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해요.” 삼촌은 아주 조용히 나의 말을 듣고 있었다. 마지막에 나는 삼촌에게 알려주었다: “꼭 ‘파룬따파는 좋다’를 많이 읽으세요. 우리 함께 노력하여 삼촌한테 행복을 빌게요.” 삼촌은 듣고나서 몹시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중에서 그래도 니가 제일 사리밝구나. 나는 니가 하라는대로 날마다 ‘대법은 좋다’를 읽겠다.”

나는 또 전화를 걸어 아주머니와 동생들에게 꼭 성심성의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많이 읽으라고 알려주었다. 가능하게 나의 견지와 진심때문인지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후 꿈에서 똑똑히 보았는데 삼촌의 얼굴엔 홍조가 띄여있었고 또 손으로 《전법륜》을 가리키면서 그도 배우겠다고 말



여생의 길을 가지 말거라.”

이런 말을 듣고나니 마음이 쓰렸다. 어렸을때 일이 생각나는데 한번은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 나는 한창 여름방학숙제를 하고 있었다. 빈자리에 써넣기 문제에 부딪쳤는데 : 한 () 희망. 나는 괄호안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 곧바로 삼촌한테 물었다. 삼촌은 참답게 나에게 말하기를: “잘 기억하거라. 한가닥의 희망이다.” 그때 나는 아주 까불어서 삼촌이 한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으며 억지를 부리며 되물었다: “왜 한가닥의 희망인가요? 가닥은 너무 작아요.” 삼촌은 말하기를 : “곧바로 너무나도 작기에 너는 단단히 틀어쥐여야 하며 때문에 희망은 비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는 “한가닥의 희망”이란 이 고정된 용어를 기억하였다.

나는 내가 반드시 삼촌한테 파룬궁진상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나에게 알려주기를: “삼촌은 지금 날마다 술독에 푹 빠져 흐리멍텅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무엇을 먹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마신다. 성격이 크게 변하여 늘 집을 들부셔 볼꼴이 없게 되였다. 니가 너의 삼촌한테 전화 걸어도 소용없다. 우리들이 별별 좋은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그는 누구말도 듣지 않는다. 너도 별

22

궁학원으로서 나는 자신이 제임스와 정식 결혼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는데 승낙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중의 하나가 바로 혼인을 맺는 것이다. 친구、가족과 신의 앞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는 승낙을 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는 파룬궁학원의 중요한 한부분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며 역시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결정이다.”

18년을 기다린 혼례는 신의 축복과 친척 친구들의 축복을 지니고 마침내 캐론과 제임스의 애정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글/《대기원》기자 서죽사)

인류의 새로운 과학



박대하고 심오한 새로운 과학



“1982-1993년 나는 엄중한 간염에 걸려 몸이 줄곧 허약하였다. 파룬궁을 배운후 2년후 32가지 혈액지수가 (그중 4가지는 간 공능이다) 모두 정상으로 되였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혹은 어느 한 방면에서 성취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개 사람의 지혜는 모두 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법륜》 속의 많은 관점들은 심

15

여생의 길을 가지 말거라.”

이런 말을 듣고나니 마음이 쓰렸다. 어렸을때 일이 생각나는데 한번은 삼촌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그때 나는 한창 여름방학숙제를 하고 있었다. 빈자리에 써넣기 문제에 부딪쳤는데 : 한 () 희망. 나는 괄호안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몰라 곧바로 삼촌한테 물었다. 삼촌은 참답게 나에게 말하기를: “잘 기억하거라. 한가닥의 희망이다.” 그때 나는 아주 까불어서 삼촌이 한 말을 그다지 믿지 않았으며 억지를 부리며 되물었다: “왜 한가닥의 희망인가요? 가닥은 너무 작아요.” 삼촌은 말하기를 : “곧바로 너무나도 작기에 너는 단단히 틀어쥐여야 하며 때문에 희망은 비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로부터 나는 “한가닥의 희망”이란 이 고정된 용어를 기억하였다.

나는 내가 반드시 삼촌한테 파룬궁진상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나에게 알려주기를: “삼촌은 지금 날마다 술독에 푹 빠져 흐리멍텅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무엇을 먹으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마신다. 성격이 크게 변하여 늘 집을 들부셔 볼꼴이 없게 되였다. 니가 너의 삼촌한테 전화 걸어도 소용없다. 우리들이 별별 좋은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그는 누구말도 듣지 않는다. 너도 별

22

궁학원으로서 나는 자신이 제임스와 정식 결혼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하는데 승낙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중의 하나가 바로 혼인을 맺는 것이다. 친구、가족과 신의 앞에서 함께 생활하겠다는 승낙을 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는 파룬궁학원의 중요한 한부분이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며 역시 사회에 대해 책임지는 결정이다.”

18년을 기다린 혼례는 신의 축복과 친척 친구들의 축복을 지니고 마침내 캐론과 제임스의 애정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글/《대기원》기자 서죽사)

인류의 새로운 과학



박대하고 심오한 새로운 과학



“1982-1993년 나는 엄중한 간염에 걸려 몸이 줄곧 허약하였다. 파룬궁을 배운후 2년후 32가지 혈액지수가 (그중 4가지는 간 공능이다) 모두 정상으로 되였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혹은 어느 한 방면에서 성취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매개 사람의 지혜는 모두 한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전법륜》 속의 많은 관점들은 심

15

지어 박사수준을 초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물리, 화학방면이거나 아니면 생물, 인체과학방면에서 그는 마치 아주 박대하고 심오한 하나의 새로운 과학인것 같았으며 연구토론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미국 죄지아 리공학원 물리학박사 양삼 (杨森)

리성으로 사고한 후의 결정

“나는 청화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리정도(李政道)교수의 물리 항목을 통하여 미국 프린스턴(普林斯頓)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였다. 졸업한후 또 벨(贝尔)실험실에서 여러해 사업하였고 이미 20 여개의 특허(专利)가 있다. 내가 파룬따파를 배운 것은 글자마다 구절마다 리성적인 사고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서 믿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자신이 아주 리성적인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 무엇이나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읽은후 나로 하여금 아주 탄복하였다. 나는 그속에서 허다한 실정(实证) 과학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것들을 배웠다. 지금 나는 어떻게 인류에 대해 더욱 유리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였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물리박사 리연 (李渊)



지어 박사수준을 초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물리, 화학방면이거나 아니면 생물, 인체과학방면에서 그는 마치 아주 박대하고 심오한 하나의 새로운 과학인것 같았으며 연구토론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미국 죄지아 리공학원 물리학박사 양삼 (杨森)

리성으로 사고한 후의 결정

“나는 청화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리정도(李政道)교수의 물리 항목을 통하여 미국 프린스턴(普林斯頓)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였다. 졸업한후 또 벨(贝尔)실험실에서 여러해 사업하였고 이미 20 여개의 특허(专利)가 있다. 내가 파룬따파를 배운 것은 글자마다 구절마다 리성적인 사고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서 믿게 되었다. 나는 이전에 자신이 아주 리성적인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그 무엇이나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파룬따파를 읽은후 나로 하여금 아주 탄복하였다. 나는 그속에서 허다한 실정(实证) 과학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것들을 배웠다. 지금 나는 어떻게 인류에 대해 더욱 유리한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였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물리박사 리연 (李渊)

는 기편당하여 파룬궁과 리선생님을 욕한 적이 있으니 나는 사과하고 폐지성명을 하려 한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2006년 3월에 전화할때 부친이 말씀하시기를 : “나는 거의 날마다 몇십부의 중공죄행을 적발폭로하는 진상자료를 찍어 배포하며 이 악당더러 빨리 끝장나게 하려다 !”

나는 나의 부친이 그립다. 우리는 비록 천산만수를 사이두고 있지만 나의 이미 지나간 생명중에서 이 시각 나와 부친의 마음은 제일 가까웠다.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몇달전 전화를 쳤을때 부친은 무엇때문인지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녀동생더러 대답하게 하였다. 녀동생은 매우 슬퍼하면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삼촌이 백혈병에 걸려 년말까지만 지탱할 수 있대요.” 큰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이 집은 전생에 가능하게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이렇게 많은 불행이 있는것 같다. 너는 꼭 잘 수련하여 너의 삼촌을 위해 많이 행복을 빌며 너의 삼촌더러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남은

는 기편당하여 파룬궁과 리선생님을 욕한 적이 있으니 나는 사과하고 폐지성명을 하려 한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2006년 3월에 전화할때 부친이 말씀하시기를 : “나는 거의 날마다 몇십부의 중공죄행을 적발폭로하는 진상자료를 찍어 배포하며 이 악당더러 빨리 끝장나게 하려다 !”

나는 나의 부친이 그립다. 우리는 비록 천산만수를 사이두고 있지만 나의 이미 지나간 생명중에서 이 시각 나와 부친의 마음은 제일 가까웠다.



생명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다

몇달전 전화를 쳤을때 부친은 무엇때문인지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녀동생더러 대답하게 하였다. 녀동생은 매우 슬퍼하면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삼촌이 백혈병에 걸려 년말까지만 지탱할 수 있대요.” 큰 아버지는 인터넷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이 집은 전생에 가능하게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하여 이렇게 많은 불행이 있는것 같다. 너는 꼭 잘 수련하여 너의 삼촌을 위해 많이 행복을 빌며 너의 삼촌더러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남은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였다.” 내가 재차 로교소에 들어간후 부친은 그의 몇십년간의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나를 위해 활동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심지어 성 정법위원회서기를 찾아갔다. 서기는 말하기를 : 도울수 없습니다. 로동교양은 제일 경한 것이고 「파룬궁」은 어떻게 처리하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부친은 절저히 절망하였다. 그 일년 반사이에 부친은 매우 많이 늙었다. 이로부터 부친은 그 누구도 「파룬궁」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5년 1월 이였다. 나는 《9평공산당》을 조용히 부친의 책상우에 놓았다. 나는 부친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안장해 주었다. 부친은 대기원, 중국을 보다, 인민보 등 인터넷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3월에 40여년 당령을 가진 부친이 대기원 탈당센터에 가명으로 탈당성명을 하였으며 탈당성명에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었다: 나는 이 당에 한평생을 기편당하였으며 나의 청백함을 모욕한 이 악당에서 탈출하겠다.

2006년 2월 멀리 해외에 있는 나는 부친의 전화를 받았다. 부친은 말씀하시기를 : “네가 해외에서 안전하니 나도 시름놓았다. 나는 지금 매일마다 대기원과 명혜망을 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삼퇴”(탈당、탈단、탈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전우 친구들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탈출하였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도와 명혜망에 성명을 발표해달라. 과거 나

20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였다.” 내가 재차 로교소에 들어간후 부친은 그의 몇십년간의 모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나를 위해 활동했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심지어 성 정법위원회서기를 찾아갔다. 서기는 말하기를 : 도울수 없습니다. 로동교양은 제일 경한 것이고 「파룬궁」은 어떻게 처리하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부친은 절저히 절망하였다. 그 일년 반사이에 부친은 매우 많이 늙었다. 이로부터 부친은 그 누구도 「파룬궁」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2005년 1월 이였다. 나는 《9평공산당》을 조용히 부친의 책상우에 놓았다. 나는 부친집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안장해 주었다. 부친은 대기원, 중국을 보다, 인민보 등 인터넷망을 보기 시작하였다. 3월에 40여년 당령을 가진 부친이 대기원 탈당센터에 가명으로 탈당성명을 하였으며 탈당성명에는 이런 한마디 말이 있었다: 나는 이 당에 한평생을 기편당하였으며 나의 청백함을 모욕한 이 악당에서 탈출하겠다.

2006년 2월 멀리 해외에 있는 나는 부친의 전화를 받았다. 부친은 말씀하시기를 : “네가 해외에서 안전하니 나도 시름놓았다. 나는 지금 매일마다 대기원과 명혜망을 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삼퇴”(탈당、탈단、탈대)를 권고하고 있는데 전우 친구들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탈출하였다. 그리고 네가 나를 도와 명혜망에 성명을 발표해달라. 과거 나

옥스퍼드(牛津) 박사의 선택



수련은 비록 현재의 과학에 의하여 완전히 해석할수 없으나 수련 중의 일부 현상은 이미 과학실험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나 자신이 몸소 겪은 실천이 바로 파룬궁은 초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련공을 통하여 소화계통의 질병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수련은 나로 하여금 전반 인생관을 모두 변화시켰다. 이전에 나는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일심으로 오로지 자기것만 보호하려 하였다. 지금 나는 “무사무아(无私无我)”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신변의 사람을 힘껏 도와드리며 질투와 경계심리도 버렸다. 수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유쾌한 시간이다.

——옥스퍼드대학 유전학박사(葛雷말레이시아)

파룬궁은 1992년 5월 중국 장춘으로부터 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14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으며 1억을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리익을 보게 하였다. 파룬궁의 주요서적 《전법륜》은 이미 30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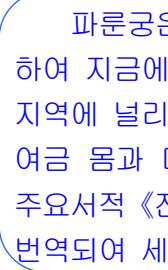
17



옥스퍼드(牛津) 박사의 선택

수련은 비록 현재의 과학에 의하여 완전히 해석할수 없으나 수련 중의 일부 현상은 이미 과학실험에 의하여 실증되었다. 나 자신이 몸소 겪은 실천이 바로 파룬궁은 초상적인 과학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련공을 통하여 소화계통의 질병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수련은 나로 하여금 전반 인생관을 모두 변화시켰다. 이전에 나는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돋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일심으로 오로지 자기것만 보호하려 하였다. 지금 나는 “무사무아(无私无我)”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신변의 사람을 힘껏 도와드리며 질투와 경계심리도 버렸다. 수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유쾌한 시간이다.

——옥스퍼드대학 유전학박사(葛雷말레이시아)



파룬궁은 1992년 5월 중국 장춘으로부터 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114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으며 1억을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리익을 보게 하였다. 파룬궁의 주요서적 《전법륜》은 이미 30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발행되고 있다.

17



부친을 그리워하며

문/쇠강

2001년 12월 17일 저녁 로교소내의 40여명 「파룬궁」 학원들은 매 사람마다 모두 2명의 “포협(包夾)” 「범인」들에게 바싹 어들러서서 강박으로 중앙 텔레비죤 “초점황단(焦点谎言)”에서 방송한 정신병 환자 부이빈(傅怡彬)이 안해를 살해한 사건을 보게 하였다. 가능하게 나타날 배합하지 않는 나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의 2명 “포협”의 손은 거의 줄곧 나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관람후 감상에서 나는 표명하였다. 이것은 더한층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꾸며낸 거짓말이다. 로교소 교도관 랑 모모가 손에 내가 쓴 관후감(观后感)을 들고 나를 주시 해보는 눈에는 원한을 품고 있었다.

몇일이 지난후 랑모모는 나를 사무실에 불렀는데 눈빛은 승냥이가 사냥물을 발견하였을때의 눈빛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이 편지를 잘 보고 더는 고집부리지 말라. 당신의 부친은 거의 70세 되는 분이며 정법계통의 선배로서 겪어온 것이 많으니 말씀한 것이 틀릴수 있겠는가? 잘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면 몇일후 부친과의 면회를 안배하겠다.” 부친의 편지를 펼치자 나의 마음은 쥐여뜯는듯이 아팠다. 두껍

18

기로 20여 페이지나 되었는데 온통 「파룬궁」에 대한 육설인바 인민일보의 가정판이였다. 40여년 당령을 갖고 있는 부친은 정말로 그를 50여 년이나 교육하고 기편한 “당”을 믿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열몇명의 교도관들은 흥분하면서 머리가 백발인 부친이 나에 대한 “교육”을 감상하였다. 부친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길을 잘못든 것을 알고 돌아서라고 권고하였다. 교도관 랑모는 이런 적발과 비판의 분의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부친이 나의 진심어린 말에 감화되려 할때 나의 말을 즉시 제지하였다. 또한 부친한테 내가 로교소에서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매혹되어 혜여나지 못하는 것의 위험을 알려주었다. 전체가 나에 대해 권고했으나 효과가 없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부친은 자제하지 못하고 나의 두뺨을 치고 눈물을 머금고 가버렸다. 나는 다가가 부친을 부축하자 그는 나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울었다. 나는 누가 부친의 마음속에 증오를 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03년 3월 이였다. 나는 또 한번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친은 경찰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파룬궁」을 련마한 후 나에게 더욱 효도하였으며 거의 날마다 손녀를 데리고 날보러 왔고 나로 하여금

19



부친을 그리워하며

문/쇠강

2001년 12월 17일 저녁 로교소내의 40여명 「파룬궁」 학원들은 매 사람마다 모두 2명의 “포협(包夾)” 「범인」들에게 바싹 어들러서서 강박으로 중앙 텔레비죤 “초점황단(焦点谎言)”에서 방송한 정신병 환자 부이빈(傅怡彬)이 안해를 살해한 사건을 보게 하였다. 가능하게 나타날 배합하지 않는 나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의 2명 “포협”的 손은 거의 줄곧 나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관람후 감상에서 나는 표명하였다. 이것은 더한층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꾸며낸 거짓말이다. 로교소 교도관 랑 모모가 손에 내가 쓴 관후감(观后感)을 들고 나를 주시 해보는 눈에는 원한을 품고 있었다.

몇일이 지난후 랑모모는 나를 사무실에 불렀는데 눈빛은 승냥이가 사냥물을 발견하였을때의 눈빛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이 편지를 잘 보고 더는 고집부리지 말라. 당신의 부친은 거의 70세 되는 분이며 정법계통의 선배로서 겪어온 것이 많으니 말씀한 것이 틀릴수 있겠는가? 잘 생각하고 빨리 돌아서면 몇일후 부친과의 면회를 안배하겠다.” 부친의 편지를 펼치자 나의 마음은 쥐여뜯는듯이 아팠다. 두껍

18

기로 20여 페이지나 되었는데 온통 「파룬궁」에 대한 육설인바 인민일보의 가정판이였다. 40여년 당령을 갖고 있는 부친은 정말로 그를 50여 년이나 교육하고 기편한 “당”을 믿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열몇명의 교도관들은 흥분하면서 머리가 백발인 부친이 나에 대한 “교육”을 감상하였다. 부친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길을 잘못든 것을 알고 돌아서라고 권고하였다. 교도관 랑모는 이런 적발과 비판의 분의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부친이 나의 진심어린 말에 감화되려 할때 나의 말을 즉시 제지하였다. 또한 부친한테 내가 로교소에서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매혹되어 혜여나지 못하는 것의 위험을 알려주었다. 전체가 나에 대해 권고했으나 효과가 없자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부친은 자제하지 못하고 나의 두뺨을 치고 눈물을 머금고 가버렸다. 나는 다가가 부친을 부축하자 그는 나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울었다. 나는 누가 부친의 마음속에 증오를 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03년 3월 이였다. 나는 또 한번 경찰에게 붙잡혔다. 부친은 경찰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파룬궁」을 련마한 후 나에게 더욱 효도하였으며 거의 날마다 손녀를 데리고 날보러 왔고 나로 하여금

19

